제22차 가을 글로벌 특별새벽부흥회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뉴스레터 News Letter 286호 주후 2024년 10월 15일(화)

The Glory of the LORD Shall Fill the Whole Earth

사진: SRC

특새의 종소리가 민족의 심장을 울리게 되기를...

금식도, 특새도 부담(Burden)이 아니라 축복(Blessing)이라 여기며, 기쁨으로 새벽을 깨우는 영가족들이 이 민족의 희망이요, 자랑입니다.

오늘 새벽 첫 시간, 두 손 들고 "성령이여 강림하사"를 부를 때, 서구교회 교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교회의 독특한 영성과 기름 부으심을 모두가 체험하였습니다. 동시에, 이 찬송을 함께 부를 때,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의 자본들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계승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주님께 상달되었음을 확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 남았는지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내겠지만, 모세처럼 생명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터 위에 '기적의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이번 10월 27일에, 한국교회 140년 역사상, 모든 교단과 교파가 한마음으로 서울의 심장부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한 것은, 지난 22차례의 특새에서 '한국교회에 드리워진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한 기도에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 은혜라 생각합니다.

이번 가을 특새가 다음 주에 있을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과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의 영적인 토대를 닦고 기초석을 세우는 기념비적인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밭에 은혜의 빗물이 흐르는 영적 공간이 준비되어, 주님 주시는 응답의 소낙비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실 것입니다.

한 주간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특새의 종 소리'가 이 민족의 심장을 울리고, 한반도 구석구석까지 울림이 전해져, 제2의 기적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불쏘시개가 되리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후 2024년 10월 14일
주 안에서 따뜻이 오정현 목사

TODAY'S PRAYER 하나님의 승리에 순명하여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1. 주여! 특새를 통해 온 영가족들이 성령의 불로 압도적인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사명에 순명하여 시대를 바꾸는 신대기의 새역사를 집필하게 하옵소서.
2. 세우신 강사님(에드워즈 스태쳐 목사, 황덕영 목사)과 오정현 담임목사님께 세상이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사, 땅에 매인 모든 것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절대 권능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3. 사랑의교회와 한국교회가 새벽마다 나와 어두운 시대 가운데 거룩한 기도의 터 위에서 축복의 유통자로서 기도할 때,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강력한 부흥의 전성기가 임하게 하옵소서.

특새 강단 아카이브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통한 부흥과 거룩

(요 17:20-24)

케빈 브라운 총장(Asbury 대학교)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건강한 부흥을 이루려면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됨을 이루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기독교 내부에서도 하나 됨이 상실되고, 유대감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통을 흔들었습니까?** 우리를 흔드는 어떤 세력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방향을 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됨의 충만을 누리고 구별되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도 얼굴도 없는 하나님의 군대

(삼상 14:1-7)

이충희 목사(Blessed International 교회)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삼상14장). 요나단은 이미 우리에게 유명하지만 무기 든 소년은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소년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을 따르겠다는 **기백있는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존 웨슬리, 빌리 그래함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성 보다 **일생을 한 결같이 이름도 얼굴도 없이 부흥을 위해 전심으로 목숨걸고 하나님께 순종해온 그들의 진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름도 얼굴도 없는 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새 현장 아카이브

영적인 토대를 닦고 기념비적인 기간으로서의

제1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
(주후 2022년 9월 26일)

"전국 3,700여 교회 5,345 목회자 참여"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모든 사역의 지경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번쩍 들며 한국교회의 무너진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계기"

6.3 상암집회
(주후 2023년 6월 3일)

"한국교회 10만 명의 성도들이 참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진리로 하나되어 모든 분열의 영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사역과 믿음의 전성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2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
(주후 2023년 10월 23일)

"등록 홈페이지 오픈 직후 7,000여 목회자 등록 완료"

"한국교회의 7천 기도용사와 사랑의교회가 '2033-50 비전'을 가슴에 품고 뜨겁고도 간절히 기도"

제20차 가을 글로벌 특새
(주후 2022년 10월 30일~11월 5일)

"목자의 심정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제21차 봄 글로벌 특새
(주후 2023년 4월 10-15일)

"모든 한국교회의 상처가 물러가고, 다시 한 번 회복과 부흥의 불씨가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21차 가을 글로벌 특새
(주후 2023년 10월 16-21일)

"목회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붙들며 재헌신하게 하옵소서"

특새 은혜 아카이브

백창욱 순장(3군단 십부장)

이번 특새를 통하여 **남은 자의 기도를 올려 드림**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순명으로 여기고 목자의 심정으로 **현실의 담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을 주시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부흥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홍혜전 순장(6군단 십부장)

가을 특새 첫 날, 작년 6.3 상암 집회의 응답과 한 주간의 금식기도의 열기로 시작부터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 하는 남은 자**로서 간절한 기도 올려 드릴 때 10.27에 예비하신 승리를 집행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용두 순장(2군단 오십부장)

오늘 특새에 참여하면서 6.3 상암 집회에서 성가대로 섬길 때에 누렸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새를 통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라며** 남은 자로서 처방전과도 같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박미경 순장(3군단 기도용사)

이번 특새를 전쟁을 준비하며 **오직 승리만 생각하는 비장한 마음**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특새에서의 부르짖음을 통해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통해 **오직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유일하게 도우실 수 있으신 우리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몇 년 전 아들이 사회시간에 "동성애 반대" 주제로 발표했다가 감점을 받았습니다. 또 코로나를 지나며 우리 사춘기 자녀들은 학교에서 교회다니는 죄인 취급도 받았습니다. 특새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7천 기도용사와 주일학교 교사로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조롱하는 악법들을 막아내는 데 힘을 다해주지 않겠니?"

최기정 리더(대학7부, 다음세대 7천기도용사))

매번 오는 특새지만 늘 새로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심을 이번에도 경험했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한다**고 다시 고백하는 기쁨과 감사의 순간이었습니다!
날마다 샘솟는 샘물과 같은 주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있는 곳곳마다 남은 자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특새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 다 버리고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강새벽(22개월, 미래 7천기도용사, 강진선 성도(부) 나눔)

'특새'라는 태명으로 엄마 뱃속에서 특새에 전참했던 딸 아이는 22개월 전 '새벽'이라는 이름을 새로 달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양육의 사명을 받은 부모는 새벽이가 마냥 순탄한 길만 걷길 바라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 앞에서도 제 이름에 깃든 새벽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기초석을 세우는 글로벌 특별새벽부흥회

총회 결의
(주후 2024년 10월)

"예장 합동, 예장 통합, 예장 고신, 예장 합신, 백석, 대신, 기독교 침례, 감리교 등 10.27 예배에 참석하기로 결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적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
(주후 2024년 10월 21일)

"등록 하루 만에 7,000여 명이 마감, 추가 등록으로 8,500여 목회자 참여"

"목양진심(眞心), 사명전심(全心)"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주후 2024년 10월 27일)

"200만 한국교회 성도들의 연합"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삼상 11:14)"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제22차 봄 글로벌 특새
(주후 2024년 4월 1-6일)

"기도 헌신을 통해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전교인 금식기도회
(주후 2024년 10월 6-12일)

"성령충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22차 가을 글로벌 특새
(주후 2024년 10월 14-19일)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사진: 길갈(Holy Land Site)

글로벌 특새 알림

1. 기도주제

오늘의 기도주제는 **'사명을 순명하여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입니다.

2. 강단초대

*오늘: 남 · 여 · 여직장인 순장반　　*내일: 제자 · 사역 훈련생

3. 강사소개

*오늘: **에드워즈 스태쳐 목사(Biola 대학교 Talbot 신학교 학장)**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사 64:1-2)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 "성령이여, 살아나게 하소서!"(겔 37:7-10)

*내일: **크리스찬 소니아 목사(루마니아 호프교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16)
하형록 목사(SaGA 명예학장, 팀하스 회장) "옛적 일을 기억하라"(사 46:9)

4. 주차안내

- **교회주차장**
- **마제스타시티 지하 6,7층** 월-금: 3시-7시까지, 토: 3시-9시30분까지
- **서초현대주차장** 월-금: 3시-7시까지, 토: 3시-9시30분까지
- **국제주차장(구 더바인웨딩)** 월-금: 3시-7시까지, 토: 3시-9시30분까지
- **서초고등학교** 월-금: 4시-6시, 토: 이용불가.
- **모든 주차장은 주차 가능시간 이후 출차시 유료입니다.**

5. 은혜게시판 활용

"특새 은혜게시판" **400-800번** 작성자께는 내일 후집회 이후 남측1층 데스크에서 **'특새 마그네틱'**을 선물로 드립니다.

* 이벤트 알림: 은혜게시판에 가장 많은 아멘이 달린 작성자께는 특별선물이 증정됩니다.

"주신은혜 기록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자"

새벽, 기도 자본을 쌓는 우린 특새 Style

은혜로 향하는 발걸음, 특새 Style

- 은혜를 사모하며 안아주심 본당으로 걸어가는 Walking Style
- 다락방 식구, 영가족과 함께 오는 Carpool Style
- 기쁨으로 새벽을 깨워 특새버스를 타고 오는 Shuttle style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찬양기도 Style

- 두손 번쩍 들고 고백하는 진심 Style
- 목청껏 찬양하는 전심 Style
- 육신은 약하지만 마음을 다한 온심 Style

은혜의 연장선, 후집회 참석 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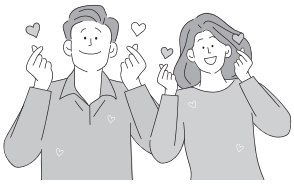
-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리사수 Style
- 곡조있는 깊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이프레이즈 Style
- 천장을 울리는 진심다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구천기도 Style

"특새기간 함께 사랑을 고백하며,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언약백성"

제22차 인사법 실천하기

영가족을 만났을 때,
엄지와 검지로 작은 하트를 만든 후

"사랑합니다"



사랑스러운 얼굴로 인사합니다.

새	영	흥	특	든	골	령	흥	한
타	골	성	섬	임	흥	한	새	골
부	광	특	령	부	새	영	교	든
영	한	글	로	령	타	골	특	섬
골	부	교	벌	글	광	든	령	글
특	든	새	타	부	섬	령	로	타
광	령	타	령	글	한	벌	특	임
부	특	부	임	로	특	타	광	령
령	광	교	든	새	영	임	교	섬

사명을 순명하는 단어퍼즐!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적힌 정답을 찾아 표시해보세요.

① "00"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② 926, 1023, 1021..? "000"
③ 여호와의 "00"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④ 특새기도카드 이름은? "0000"
⑤ 찬송가 190장 "00"이여 강림하사
⑥ 새는 새인데, 전 세계에 은혜를 주는 새는? "00000"

2024 가을 특새 출석표

둘째날

"특새의 종소리가
민족의 심장을 울린다"

출석표의 절취선을 오려 출석부에 붙여주십시오.

언약채플(N201,301)

언약백성 남은 자들이 방문해야 할 은혜의 장소!!
숭고하고 경건한 영적 축제와 교제의 공간

거룩한 예배 처소이자
믿음의 명문가문을 위한 결혼예배 공간

승리와 영광이 표현된
스테인드 그라스

고전미와 현대미가 함께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예배당

제 286호 주후 2024년 10월 15일(화)　**발행인** 오정현　**기획** 특새 TFT, 커뮤니케이션실　**발행처** 사랑의교회 www.sarang.org